

## 기녀의 내면 풍경을 엿보는 남성 문인의 시선\*

김진균\*\*

<차 례>

1. 머리말
2. 이옥에게서의 기녀의 내면 풍경 - 만남의 관념과 정욕의 일탈
3. 변영만에게서의 기생의 내면 풍경 - 사랑의 관념과 일상의 일탈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옥(李錡, 1760~1815)의 『북관기야곡론(北關妓夜哭論)』과 변영만(卞榮晩, 1889~1954)의 『백운선(白雲仙)』은 당대 유명한 기녀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산문이다. 남성 문인으로서 여성, 그것도 기녀의 일화를 다루면서 내면 풍경에 진지하게 접근하려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옥은 가련(可憐)이라는 기녀가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미소년을 만나 정을 주려다가 좌절한 일화를 다루면서, 군신간의 의리와 같은 층위에서 해석해보려 하였다. 변영만은 백운선이라는 기생이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려다가 좌절한 후일담을 다루면서, 절대적 사랑의 가치를 논해보려 하였다. 그러나 가련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워 서술을 이끌어가면서 『북관기야곡론』은 이옥의 의도에 배반하는 파편적 진실성을 노출하였다. 대상의 진정성을 찾아보려는 변영만의 문학적 태도 아래 『백운선』은 변영만의 의도에 어긋나는 상황을 고스란히 노출하였다. 전근대와 근대의 두 남성 문인이 기생의 욕망을 자신의 개념으로 포착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거기에서 기생의 내면 풍경을 진정성 있게 묘사하는 문학적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2006)

\*\*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이옥(李玉), 변영만(卞榮晩), 「북관기야곡론(北關妓夜哭論)」, 「백운선(白雲仙)」, 욕망, 진정성

## 1. 머리말

기녀(妓女)의 다양한 별칭 중에 헤어화(解語花)라는 단어가 있다.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흔히 꽃으로 비유하거나, 하필이면 여성 중에 기생에게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직하다. 기녀의 역할은 남성들에게 노래와 춤과 여타의 풍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잔치에서 음주로 흥이 돋우어질 준비가 된 듯 남성들에게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꽃으로서, 가무와 풍류로 유흥의 절정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흥의 절정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감, 그것이 꽃과 나누는 대화일 것이다. 애초 양귀비(楊貴妃)를 지칭했던 말을 알아듣는 꽃이란 말이<sup>1)</sup> 가족 제도의 밖에서 성적 만족과 더불어 정서적 교감을 찾는 남성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존재에 대한 별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기녀는 특수한 신분이다. 가부장제적 가족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지만, 가족 제도의 밖에서 가부장제 권력의 행사자인 남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여성으로서, 역시 남성중심적 사회 제도의 산물인 것이다. 『효종실록』의 정려(旌閭)에 대한 기록 중에 “단천의 관기 일선(一仙)은 기만헌(奇晩獻)이 그 고을을 맡았을 때에 그의 아들 기인(奇愼)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수년 동안 수절하다가 기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상차(喪次)에 달려가 곡하고 종신토록 상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기생에게 요

1) 이능화 저, 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7쪽.

구되지 않던 수절(守節)을 스스로 결행한 특이한 행동이었다.<sup>2)</sup> 남성과 여성의 성적 수평 관계를 가부장제적 가족 제도 안에서 남성 위주의 수직적 불평등 관계로 전환시켜 강제한 행동이 ‘수절’이며, 가족 제도 밖에 있는 기생에게 권장되는 행동은 아니었다. 기생이 수절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더이상 기생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이며, 남성들은 더이상 그녀를 말을 알아듣는 꽃으로 불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생에 대한 정려는 그러므로, 기생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거부한 것에 대한 표창이다. 춘향의 서사에서 보듯이 그런 행동은 심지어 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사회적 역할을 거부한 것에 대한 국가적 표창은 그 사회적 역할이 갖는 부조리한 속성에 대해 남성 국가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말을 알아듣는 꽃에 대한 남성들의 이중적이며 모순된 시선의 표백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시선에서 하나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으니,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여성을 도구화하는 태도이다. 가족 제도의 밖에서 성적 욕망을 해소할 도구가 필요할 때 이 특수한 신분의 여성을 말을 알아듣는 꽃으로 소환하고, 가부장제적 독점 성욕의 욕망을 관철할 이념적 소재가 필요할 때 이 특수하게 비천한 신분의 여성들에게까지 수절의 명예를 허용하는 것이니, 결국 남성적 욕망이라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말을 알아듣는 꽃으로서 못 남성의 요구에 응대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녀가 사회적 역할을 거부하고 선택한 수절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가족 제도 밖에서 성적 대상을 찾는 남성 욕망을 배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 제도 안팎에서 성적 독점을 관

2)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474~475쪽; 『효종실록』, 효종 3년(1652) 12월 21일(기미)조, “端川官妓一仙, 於奇晚獻之守其郡也, 爲其子, 所眊, 守節數歲, 聞死, 奔哭喪次, 服喪終身. 道臣以聞, 禮曹請竝依例旌表, 從之.”(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에서 인용)

철하려는 가부장제적 남성 욕망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춘향의 서사에서 보듯 그런 행동은 징벌의 빌미가 되는 동시에 명예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점을 달리해서 기녀의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수절 혹은 열행(烈行)은 전혀 권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부장제적 가족 제도 안에 있는 일반 여성에게 부여되고 권장되는 것과 달리 개인적 선택과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종속되기로 결심한 단 하나의 남성이 먼저 선택되고, 선택된 남성과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수절을 결단하고, 선택된 남성이 죽어서 종속의 대상이 사라졌을 때 열행을 결행한다. 수절과 열행에 앞서 존재하는 단 하나의 남성, 기녀가 스스로 종속되기로 각오한 단 하나의 남성에 대한 선택은, 제한적 의미에서 주체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제도의 안팎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적 질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제한적 요소가 될 것이지만, 가족 제도의 밖에서 유흥을 즐기는 남성중에 상대를 모색하여 매력을 발휘하는 남성을 낙점한다는 점에서는 주체적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족 제도의 안쪽에서 강요되는 정도보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수절과 열행을 기녀가 보여준다면, 어쨌거나 거기에서 제한적이거나 기녀의 주체적 선택과 자신이 낙점한 남성에 대한 진실한 감정 및 그 감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수절과 열행은 종속될 남성이 소멸했을 때 작동한다. 가부장제적 가족 제도 안에 있는 여성과는 달리 기녀는 종속될 남성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남성의 소멸 이후 수절과 열행 역시 주체적 결단에 의해 결행한다. 이 기녀의 주체적 선택과 책임에 대해, 가부장적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남성 지식인이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었을 것이다. 권력의 핵심인 조정에서 이러한 사건을 언급한다면, 원인이 되는 주체적 선택

의 감정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고, 결과물로서의 수절과 열행이 왕조적 도덕물에 부합하는 것만을 강조하기 십상이다. 권력을 나눠갖는 사대부들 역시 주제적 선택의 내면 풍경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결과물을 도덕물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녀의 내면 풍경에 대해 남성 문인이 다루는 것은 드문 일인데, 소재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주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18세기의 문체적 작가 이옥은 전해들은 이야기로 기생의 내면 풍경을 다루었고, 20세기의 문체적 작가 변영만은 직접 목도한 사건으로 기생의 내면 풍경을 다루었다. 이 두 작가의 작품들을 비교하여 기녀의 주제적 선택의 내면 풍경이 어떻게 달리 포착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한다.

## 2. 이옥에게서의 기녀의 내면 풍경

### - 만남의 관념과 정욕의 일탈

이옥(李鈺, 1760~1815)의 글 중에는 여성을 소재로 한 글들이 다른 문인에 비해 상당히 많다. 이옥은 문학적 대상으로 자주 여성을 설정하여, 여성의 감정과 생활을 묘사하였다. 그가 여성을 시적 화자로 등장시켜 여성의 다양한 감정을 곡진하게 묘사했던 「이언(俚諺)」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 작품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언인(俚諺引)」에는 혹자를 설정하여 그와 가상의 문답을 나누면서 논란을 전개하고 있다.

그 시대를 물으면 연화태평(煙花太平)으로 희희양양(熙熙穰穰)한 좋은 세계이고, 그 땅을 물으면 비단을 펼친 듯한 장안에 분주하고 시끌벅적한

큰 도회이며, 그 사람을 물으면 붓과 먹으로 여러 해 동안 잠잠(涔涔)하고 답답하게 보내는 한가로운 생애이다. 낮에 거리에 나가다니면 마주치는 것이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고, 밤에 돌아와 책상을 대하면 펼쳐 보는 것이 오직 도서 몇 권일 뿐이다. 그 마음이 간질간질하여 마치 천 마리 백 마리의 이[蟲]가 간에서 두루 달리는 것과 같다. 나는 또한 오장육부(五臟六腑)를 다 기울여 이 이들을 쏟아내 놓은 뒤에야 그만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시를 짓게 된다면 천지만물 사이에서 그 묘하고도 풍부하며 정이 진실된 것을 버리고 내가 다시 어디에 손을 댈단 말인가?<sup>3)</sup>

혹자가 왜 여자의 일만 언급하고 있는냐고 묻자, 매일 거리에서 그들과 마주치는 도시의 남성 작가로서 도저히 시적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으며, 평화로운 시기에 한가한 문인으로서 풍부하고 진실한 정감을 갖고 있는 여성 말고 무엇을 쓸 것인가 하고 되묻고 있다. 「이언」의 성격에 관해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민요풍의 한시로 대변하면서 여성적 정감을 곡진히 짚어내고 있다는 평가와, 중세 남성 지식인의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sup>4)</sup> 물론 남성 문인으로서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듯하지만, 이런 논란이 전개될 수 있었던 애초의 이유는 이옥이, 비록 남성 작가의 상상 속에서 창출하는 이미지이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작품 전면에 내세

3) 이옥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언」, 『완역 이옥 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415~416쪽, “問其時也, 則煙花太平, 熙熙穰穰之好世界也; 問其地也, 則錦繡長安, 紛紛擾擾之大都會也; 問其人也, 則筆墨多年, 涔涔悶悶之間生涯也. 晝而出遊乎街坊, 則所逢者, 非男則女也; 夜而歸對乎床書, 則所展者, 唯圖書數卷也. 其心焉癢癢焉, 如千百蟲之遍走乎肝葉也. 吾亦不得不傾倒腸胃, 出此蟲而後已矣. 然而既作之, 則天地萬物之間, 舍其妙且繁而情眞者, 吾復何處焉下手也哉?”

4) 이동환, 「조선후기 한시에서의 민요 취향의 대두」, 『한국한문학연구』 3·4 합집, 1979, 27~71쪽; 박무영, 「여성화자 한시를 통해 본 역설적 ‘남성성’ —「이언」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7집, 1999, 93~116쪽.

왔기 때문이다. 우선 이 점을 주목해본다.

이옥은 『북관기야곡론(北關妓夜哭論) 병원(并原)』에서 가련(可憐, 1671~1759)이라는 함흥 기녀의 일화를 전하고 있다. 가련은 당대 사대부들과 나눈 시가 적지 않게 남아 있고, 이견창(李建昌, 1782~1898)이 『가련전(可憐傳)』을 지은 바 있는 상당히 유명한 기녀였다.<sup>5)</sup> 이견창은 가련이 기녀의 신분이면서도 노론을 적대시하며 남인과 소론계 인사들만을 대접하였고, 남인이 실세하는 갑술환국(1694) 이후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인계 유배객들을 찾아가 당론을 이야기하였으며, 남인에 대한 절조를 바꾸지 않았던 일화를 소개한다. 기녀에게도 당색이 있다면, 가련은 남인 기녀였던 것이다. 이견창의 기록에 의하면 남인계 인사들은 가련의 적극적인 행동과 의리를 높이 평가하며 여협(女俠)으로 대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련의 협기(俠妓)로서의 이미지는 이렇듯 남인계 문인들에 의해 전승되었던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sup>6)</sup>

이옥은 가련이 죽은 다음 해에 태어났는데, 무반계 서족으로서 소북의 계보에 속하고 있어서,<sup>7)</sup> 대략 남인과 소론계가 형성하고 전과한 가련의 이미지를 거의 고스란히 전해 듣고 그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 같다.

함흥의 기녀로서 이름이 ‘가련(可憐)’이란 이가 있었는데, 얼굴이 매우 아름답다웠으며 성격이 소탈하고 기개가 있었다. 시문(詩文)을 제법 이해하여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를 낭랑하게 외웠고, 술을 잘 마셨으며, 노래를

5) 정우봉, 「18세기 함흥 기생 可憐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한문교육연구』 34집, 2010, 353~386쪽.

6) 정우봉, 위의 논문, 382쪽.

7) 김영진, 「이옥 연구(1) —가계와 교육, 명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8, 2002, 341~366쪽.

잘할 뿐 아니라 검무에도 능하고, 거문고를 타고 통소를 품평하기도 잘하며, 바둑과 쌍륙(雙陸)에도 능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재기(才妓)’라고 일컬었는데, 스스로는 여협(女俠)이라고 자부하였다. 일찍이 태수(太守)를 따라 낙민루(樂民樓)에 올랐다가 만세교(萬歲橋)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 바라보니 미소년이었다. 옷차림이 산뜻하고 고왔으며, 얼굴 생김이 수려하여, 그 풍채와 운치가 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하였다.<sup>8)</sup>

그런데 이견창의 전이나 여타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사건과 일화들은 생략하고, 이옥이 이 글에서 다룬 사건의 핵심에 관계된 특징만을 다루고 있다. 아마도 이옥은 가련이 남인과 소론계 인사들로부터 협기(俠妓)로 대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긴 듯하다. 타인의 평가는 없는 듯, 고작 “스스로 여협이라고 자부”한 정도로만 묘사하였다. 적어도 이 글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은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가련의 인물 형상으로 우선 외모를 평하고 성격을 언급하고 나서 장기를 나열하여 기생으로서 재주가 있음을 드러냈다. “재자가인 소설의 소재로 적격”<sup>9)</sup>이라고 할 만한 인물 형상이다. 여성으로서佳人(佳人)에 속해야 할 듯하지만, 재주있는 여성으로서 재자의 면모가 통합된 인물형이 되었다. 주체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성격적 기반을 설정해둔 것으로 보인다.

가련이 만나게 되는 남성은, 남성으로서 재자(才子)에 속해야 하겠지만, 등장에서는 미소년의 인상으로만 언급되어 오히려 가인의 느낌을 준

8) 이옥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북관 기생의 한밤중 통곡, 아울러 원 사실을 적어둔다』, 『완역 이옥 전집』 1, 휴머니스트 2009, 404쪽, “咸興之妓, 有名可憐者, 顏色甚好, 性個儻如也. 粗解詩文, 誦諸葛亮『出師表』琅琅也, 善飲酒, 善歌, 兼能舞鈿, 能搗琴品簫, 能碁與雙陸. 人皆稱之爲才妓, 而顧自許以俠也. 嘗從太守, 登樂民之樓, 見有從萬歲橋來者, 美少年也. 巾服姣鮮, 儀容秀美, 風韻能動人.”

9) 정환국, 『이옥에게 있어서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 269쪽.

다. 미소년의 등장에서부터 두 사람의 짧은 하룻밤을 향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소년은 가련의 집을 찾아가고, 가련은 관찰사에게 핑계를 대고 하직하여 집으로 급히 돌아갔다. 가련은 소년을 맞이하여 유흥을 펼친다. 가련의 인물 형상에서 나열된 시문과 술과 노래와 바둑과 쌍륙과 거문고와 통소 등을 거의 다시 나열하여 가련과 소년이 즐기는 장면을 그려내는데, 가련이 거문고를 타면 소년이 노래를 부르고 가련이 노래를 부르면 소년이 거문고를 타고, 바둑이나 쌍륙을 서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모든 것에서 서로 막상막하의 재주를 지닌 것처럼 그려냈다. 이렇게 소년도 가련과 동등한 능력을 지닌 재자가인 통합형 인물형임이 확인된다. 유흥 놀이에서 막상막하의 팽팽한 경쟁은 서로의 능력을 가늠하는 탐색전과 같은 것이었고, 탐색전의 끝에 서로 합심하여 즐기는 절정으로 도약한다.

더불어 통소를 부니 한쌍의 봉황이 와서 그 만남을 기뻐해주는 듯하였고 더불어 칼춤을 춤에 한 쌍의 나비가 합하여 헤어질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가련이 매우 기뻐하여 과분하게 여기고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 하나를 만난 것으로 족하다. 내가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도리어 자신이 합당한 상대가 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sup>10)</sup>

역할을 나눈 재자와 가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서로의 가인형 외모에 끌리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재자형 재주로 탐색을 마친 뒤, 재자가인 통합형 인물 두 사람이 서로의 완벽함을 일체화하는 놀이로써 유흥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것이다. 욕망의 목적지를 향해 바빠 달려온 두 사람

10) 이옥 저, 위의 글, 405쪽, “與之簫, 雙鳳來而喜其遇; 與之鈞, 雙蝶合而不能離。可憐大喜過望, 自以爲‘我於斯世, 得一此人, 足矣。吾不虛生此世也’, 欣欣乎猶恐不得當也。”

이 이제 목적지에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가련은 생각하며, 혹시 자신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걱정하기까지 하였다. 하룻밤의 단계에서 자신의 성적 매력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위축될 정도로 상대방의 매력에 완전히 포섭된 것이다. 걱정을 뒤로 하고 머리와 치마를 풀고 불을 켜는데, 소년이 한숨만 쉬며 다가오지 않는 것이었다. 가련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고자였다.

가련이 드디어 벌떡 일어나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기를,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 사람이여! 이 사람이여, 하늘이여!” 하며 한바탕 통곡을 하였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달이 지고 이미 새벽인데 새가 울고 꽃이 지고 있었다.<sup>11)</sup>

절정을 향해 가는 긴장의 분위기에서, 예상 못한 사태를 맞닥뜨리며 긴장은 뚝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하고, 한바탕 통곡 끝에 날이 새는 분위기로 마감한다. 여기까지가 『북관기야곡론』의 원래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고, 이 뒤에서부터 논평이 원래 사실보다 길고 장황하게 이어진다. 원래 사실로 다루어진 부분의 서사가 긴장으로 치달는 것은 가련과 소년이 절정에서 한 몸이 될 것을 짐작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날이 새는 분위기로 마감되는 것은 그 짐작이 어이없이 어긋나는 사태 때문이다. 이 사태에서 발생한 가련의 통곡은 다분히 정욕을 이룰 기대에 대한 배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옥은 논평에서 “정욕을 이루지 못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천고에 만남이 어려운 것을 통곡한 것이다. 어찌 통곡을 잘한 자가 아니겠는가?”<sup>12)</sup>라고 하여, 가련의 상심에 정욕은 포함되지 않는 것처

11) 같은 글, 406쪽, “可憐遂蹶然起, 以手敲地, 哭曰: “天乎, 天乎, 斯人乎! 斯人乎, 天乎!” 大哭一場, 推戶視之, 落月已曉, 鳥啼花落矣.”

12) 같은 글, 410쪽, “非哭其情欲之不得遂, 而哭千古際遇之難者也. 其豈非善於哭者也耶?”

림 서술하였다. 오직 천고의 만남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통곡을 하였다는 것이다.

천지간에 사람으로서 결합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임금과 신하요,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이다. 오직 사람과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는 비애와 환락이 있게 마련이니, 이는 인지상정이다.<sup>13)</sup>

그리고 천고의 어려운 만남인 그 결합에는 군신간의 결합과 남녀간의 결합,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옥은 이 글에서 “만났으되 만나지 못함[遇而不遇]”처럼 만남[遇]을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만났으되”의 단계에서는 서로 마주하였다는 뾰뚱한 만남의 의미이고, “만나지 못함”의 단계에서는 걸맞은 상대로 관계 맺는 깊은 만남의 의미이니, 이 후자의 만남을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결합[合]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신과 남녀가 만나서 온전히 하나가 되면 환희가 있고, 만났으되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비애가 있게 된다고 하면서, 이 뒷부분에서 이옥은 “군신과 남녀의 만남에서 정성으로 매달리고 마음을 보내는 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간절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가 군주보다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sup>14)</sup>고도 했지만 곧이어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호랑이를 따른다고 했으니 다만 군주가 신하를 택할 뿐 아니라 신하 또한 군주를 택한다”<sup>15)</sup>고도 했다. 여자와 신하 쪽이 더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수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자와 군주를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상호 선택하는 두 주체의 만남을 바로 “사

13) 같은 글, 406쪽, “天地之間, 人而合者, 有二, 曰君臣也, 曰男女也. 惟其人與人, 合而爲也, 故有悲哀喜樂於其間, 此人之常情也.”

14) 같은 글, 406쪽, “其所懸誠而馳想者, 不得不女切於男臣重於君也.”

15) 같은 글, 406쪽, “雲從龍, 風從虎, 非徒君擇臣, 臣亦擇其君.”

람과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뒤에 장량(張良)과 패공(沛公)의 만남을 들어 천고의 만나기 어려움은 대개 군신간의 만남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가련의 내면으로 시선을 옮겨 마치 가련이 된 듯 서술한다.

이 세상에 이런 자를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멀고도 멀구나. 전전반측한 것이 진실로 이미 오래 되었도다. 그런데 이에 무지개다리에 석양이 질 무렵 멀리 바라보매 홀연히 눈앞이 밝아지며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어, 맑게 그 고운 빛을 떨쳤구나. 해후하여 서로 만났으니 나의 소원에 맞았도다. 그리하여 돌아와 등불을 켜고 술잔을 따름에 내가 노래하고 네가 화답하니, 왼쪽이면 또 왼쪽으로 군자의 정다움이며, 오른쪽이면 또 오른쪽으로 군자의 몸가짐이로다. 오직 그만이 이것을 가졌으니 이 때문에 서로 닮았구나. 이러한 때를 만난다는 것은 커다란 물고기가 큰 못을 만난 것 같고, 큰 새가 순풍을 만난 것과 같고, 어진 신하가 성군을 만난 것과 같다. 백년은 감히 바랄 수 없더라도 하루 저녁이라도 오히려 다행인 것이다. 이 밤이 어떤 밤이기에 이러한 해후가 있던 말인가. 그대여, 그대여, 이 해후를 어찌할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이 맑아지고 뜻은 가득해지며 생각이 뿌듯하고 몸이 편안해지니, 비록 그대를 위하여 이 밤에 죽게 된다해도 진실로 달게 여길 것이다.

누가 알았겠는가? 사람들이 능하지 못한 것에 능한 자가 오히려 남들이 능한 것에 능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가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을 줄을. 필경 만났으되 만나지 못한 한탄이 있게 되었으니 아, 끝장이로다.<sup>16)</sup>

16) 같은 글, 408~409쪽, “此世此人, 豈容易可得也哉? 悠哉悠哉, 轉轉反側者, 固已久矣. 而乃者, 虹橋斜日, 遠眼忽明, 則有美一人, 清揚婉兮. 邂逅相遇, 適我願兮. 及其回燈添酒, 予倡女和, 則左之左之, 君子宜之; 右之右之, 君子有之. 維其有之, 是以似之. 當是時也, 巨魚之縱大壑, 鴻毛之遇順風, 賢臣之得聖主也, 百年非敢望也, 一夕猶自幸也. 今夕何夕, 見此邂逅, 子兮子兮, 如此邂逅何? 自不覺神清而志

스스로 재능을 갖추고 자기에게 걸맞은 상대를 찾는 능동적 주체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본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기다리며 지낸 세월의 끝에 드디어 걸맞은 상대를 만났다는 환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큰 물고기가 큰 물을 만난 것과 큰 새가 숲을 만난 것에 비유한 끝에 어진 신하가 성군을 만난 것에도 비유하였다. 가련이 소년을 만난 인연을 어진 신하가 성군을 만난 것에 비견한 것은 가깝게 보아넘길 수 없다. 이옥이 논평 부분에서 만남의 예로 드는 것은 장량을 비롯하여 가의(賈誼), 이광(李廣) 그리고 맹자(孟子) 등으로 실상 모두 군신간의 만남이다. 만남의 환희와 비애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은 주로 가련의 내면 풍경이다. 이옥의 논평은 만났으되 만나지 못한 가련의 내면 풍경을 주제로 하고, 군신의 만남을 예로 비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가련과 소년의 만남이라는 남녀의 만남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군신의 만남의 의미를 원용하는 것이니, 군주에 대한 신하로서의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남성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로 자신을 분석하는 『이소(離騷)』나 『사미인곡(思美人曲)』의 연상구조와 반대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다. 중첩되고 반복되고 나열되는 이옥의 문체적 특성상, 이 구조가 병렬의 상태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군신간에 만났으되 만나지 못한 상황을 중심에 두고 “작가 스스로의 불우한 처지와 신세를 기탁”하였다든가,<sup>17)</sup> “이옥 자신이 바라던 진정한 만남에 대한 심상을 대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sup>18)</sup> 작가의 내면 심리 차원에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만, 작품의 문맥 차원에서 바로 짚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옥 자신의 신세 한탄이라고 상상해보면, “만났으되 만나지 못한 상황”보다는

---

滿，意驕而身怡，雖使爲君而死此夜，固所甘心也。誰知能人之所不能者，反不能人之所能，有人之所無有者，獨不有人之所有？竟使遇而有不遇之嘆，則已焉哉！”

17) 정우봉, 앞의 논문, 373쪽.

18) 정환국, 앞의 논문, 271쪽.

‘아예 만나지도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남성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려 했던 가련이 화자로 등장하여 고백하는 위의 내면 풍경을 집중해보면, 자신과 닮은 사람을 기다리다 드디어 만난 환희가 길게 묘사되며 점차 “정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원래 사실 부분에서 소년이 고자임을 확인하고 통곡을 하는 것은 분명, 이 기대가 어긋난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옥은 논평 부분에서 즐기치게 “정욕을 이루지 못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그런데 논평 부분에서 가련의 내면 풍경은 위와 같이 상상되어 있다. 이옥의 의도는 애초에는 가련이 한밤중에 통곡한 사실을 놓고, 만났으되 만나지 못한 비애로 해석하려는 것이었다. 가련이 재자가인 통합형 인간으로 주체적 선택을 통해 스스로 충족되어도 좋을 만한 재자가인 통합형 인간을 만나는 데에까지는, “만났으되”의 상황에서 가련의 목소리로 환희를 고백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인 “만나지 못한”의 상황에서는 “정욕을 이루지 못한” 것을 배제하고는 가련의 목소리로 비애를 토로할 수 없다. 그리하여 가련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단 하나 못 가진 사내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옥이 여성을 등장시킨 여러 작품에서 열절을 통해 충신의 절개를 오버랩하였는데, 비록 그 소재를 남녀 ‘진정’에서 찾고 ‘여자’에서 찾았더라도 그 주제는 사(士)로서의 현실비판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sup>19)</sup>은 ‘여성의 진정’과 ‘사의식’ 사이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진정’은 감성의 영역에 있고 ‘사의식’은 이념의 영역에 있는데, 양자의 괴리를 『북관기야곡론』을 힌트로 삼아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이옥의 ‘진정’에 관한 해석은 주로 『이언』에서 문학적 제재의 진실한 정감을 표출하겠다는 의도와,

19) 이지양, 『이옥의 문학에서 “남녀 진정”과 “열절”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29집, 2002, 455쪽.

문학적 제재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서사 방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언』에서 그 문학적 제재는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남성 지식인으로서 이육이 창조한 형상이다. 『이언』의 마지막 “비조”의 아내는 술주정뱅이 도박꾼인 남편에게 폭력과 강탈을 당하면서도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가부장 질서의 한 축을 놓지 못하고, 파탄 대신 미봉된 가정으로 복귀한다. 여성의 진실한 목소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남성중심주의적 사유라고 볼 만한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자를 내세워 그의 발언으로 사태를 묘사하는 방식에서는, 남성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만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감성이 드러난다. 자신이 설정한 상황에서 대상의 진실한 정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고심한 결과, 순간의 진정이 파편적으로 포착된 것이다. 『북관기야곡론』 역시 군신간의 만남과 같은 층위에서 남녀의 만남을 해석하려는 이념적 지향이 의도되고는 있지만, 소년과의 만남의 감정을 가련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워 고백하게 하는 구조를 취하면서, 가련의 진정이 파편적으로 포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지식인의 이념적 틀을 벗지 못했지만, 문학적 수법이 이념적 틀을 배반하는 모순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련은 정욕을 이루지 못한 것에 통곡한 것이다. 재자가인의 완전체인 상대가 단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음에 통곡하였다. 이육의 작가 의식을 넘어서는 독립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다.

### 3. 변영만에게서의 기생의 내면 풍경

#### - 사랑의 관념과 일상의 일탈

변영만(卞榮晩, 1889~1954)은 한문학 작가이면서 근대적 문인이기도 하다. 수필과 소설 등을 국문으로 작성하기도 했고, 블레이크를 번역하기

도 했고, 동서양의 문학과 문명을 회통하려는 기획을 하기도 했다.<sup>20)</sup> 한문은 중세적 생활양식과 중세적 이념을 담아 그것을 중세적 미학으로 관찰시키는 도구였다. 근대의 시대에 활동한 변영만은 한문을 근대적 감각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실제 그의 창작에서도 근대적 이념과 정서를 담아, 당대의 한문문장가로부터 “기이한 인간, 기이한 문장(奇人奇文)”이라는 평가를 얻었다.<sup>21)</sup> 중세보편주의의 핵심 중의 하나인 도학문장의 도덕관념을 해체하고 나서 수립한 문예적 인식 위에서 변영만이 실제로 건설하려 한 문예는 실상 다양한 방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중 문학적 태도로서 두드러진 점은 문학적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념의 기준을 제거하고 나면 이념의 프리즘을 통하지 않은 인간의 참된 진정성을 추구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곳곳에 편만해 있는 외면하고 싶은 참상(慘狀)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 가려져 섬세한 관찰을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다. 결국 타인이 포착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가치의 발견이 변영만의 문학적 진정성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sup>22)</sup>

변영만은 1922년 지은 『백운선(白雲仙)』에서 기생 백운선(1900~?)을 만나 느낀 감정을 짙막하게 서술하고 있다. 백운선은 식민지 조선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듯하다. 평양 출신으로 경성 대정권번(大正券番)에 속해 있었는데, 조선기생들의 사진과 기예와 이력을 수집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에는 가사와 시조와 서도잡가 및 검무, 승무, 정재 42종무, 서양무도, 일본춤에도 기예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녀는 미모와

20) 임형택, 「변영만의 글쓰기 형식과 문학 사상」, 『대동문화연구』 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175쪽.

21) 曹兢燮, 『巖棲集』, 「答卞榮晩書」.

22) 김진균, 「변영만의 상이부안씨에 나타난 근대적 비극과 문학적 진정성」, 『한문고전연구』 28집, 2014, 231~249쪽.

춤실력과 노래실력을 갖춘 재주 있는 기생으로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유성기 음반도 여러 종 내었던 유명한 기생이었다. 그녀가 구제회에 기부했다든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하는 사회면의 소식부터 누구와 살림을 차렸다는가, 폐업을 했다는가 하는 자질구레한 소식들까지 『매일신보』에 자주 보도되고 있었던 사실에서 그의 유명세를 짐작해볼 수 있겠다.<sup>23)</sup>

변영만의 「백운선」은 백운선에 대해 들은 소문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생으로 ‘백운선(白雲仙)’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평양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김모라는 소년(少年)을 사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소년은 행동이 이랬다저랬다 하고 주머니는 텅 비어 한 푼의 돈도 없었으나, 운선은 그를 대함에 더욱 근진하였고 조금도 정이 식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운선은 점차 그 집에 몸을 두기가 어렵게 되어, 몰래 오백 금을 김 소년에게 주어 따라올 여비로 쓰라고 한 연후에 자신은 상해(上海)로 도망을 쳤다. 반년을 기다려도 김 소년은 이르지 않았으니, 오백 금은 벌써 도박장에서 하루저녁에 탕진되었던 것이다. 운선도 이런 사정을 알게 되었고, 곤궁과 기아에 허덕이며 낭패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상심하여 돌아오고 말았다. 그런데 김 소년은 또한 차차 자취를 끊고 말았으므로 이에 운선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생이 되었다.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이와 같으니, 서울 사람들이 모두 능히 근거 없는 말을 조작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듣고 마음속으로 특별하게 여겼으나 전혀 만나볼 계제가 없었다.<sup>24)</sup>

23) 신현규, 「기생 백운선을 콘텐츠로 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고찰」, 『어문논집』 43, 2010, 219~243쪽. 전반적으로 기생 백운선의 언론출판 노출 자료는 이 논문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재밋게도 1968년 『선데이서울』 9월29일자에 칠순의 나이로 살아 있다는 기사까지 확보했다. 이 해에 음반을 낸 기록이 있다고 한다.

24) 변영만 저,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백운선 이야기」, 『역주 변영만 전집』 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586쪽, “妓有白雲仙者, 平壤産. 嘗愛金少年某. 既而金

서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던 백운선의 소문은 『매일신보』에서 기사화되었던 적도 있었다. 「백운선의 비밀」이라는 가십성 기사였는데 무려 15회나 연재되었다.<sup>25)</sup> 약간의 소설적 수법으로 대화와 독백, 그리고 통속 소설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평설이 어우러져 장편 연재 가십 기사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변영만이 들은 소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백운선의 처지 및 김 소년과의 연애 상황이 훨씬 극진하게 나열되어 있다. 백운선이 평양에서 태어나 열세 살에 경성으로 와서 기생조합에 들게 되었고, 평양의 모친을 불러와 기생 영업을 시작하게 된 일, 재물보다 지식과 열정을 갖춘 인물을 만나 연애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일 등을 잡다하게 묘사하고, 백운선의 연애 희망을 모친이 금전 욕심 때문에 통제하는 상황 등을 풀어냈다. 그러다가 K라는 남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백운선의 모친은 돈이 다 떨어진 K와의 연애를 반대하는데, 백운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 온 K와 병실에서 자유롭게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백운선은 모친에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속이고 빚을 얻어 천원을 내어준 뒤 K와 살림을 차렸다가 모친에게 들키기도 하고, 모친에게서 도망치다가 붙들리기도 했다. 도망치다 붙들렸을 때 함께 있던 K는 혼자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 상해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애가 닳아오른 백운선은 귀국한 K에게 상해에 가서 살자는 약속을 하고 상해로 먼저 가고, K는 형편이 닿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다. K는 아직도 따라가지 않았고, 돈이 떨어진 백운선은 상해에서 홀로

---

少年行貳三，囊又罄竭，不名一錢，而雲仙視之，有加熱無或減。以是雲仙漸無以容其身於其家中，則暗暗五百金於金少年，俾作躡行之資，然後，以身得逃於上海。待之且半年，金少年不至，五百金固已蕩於賭場一夕矣。雲仙得情，遂窮餓困頓，狼狽周章，喪心而歸，而金少年亦稍稍自絕。於是雲仙不得已而復為妓焉。京中人所言皆如是，京中人非皆能造作無根之說者，余聞而心異之矣，而殊無接見之便。”

25) 「백운선의 비밀」1~15회, 『매일신보』, 1919.7.16.~8.2.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백운선의 비밀』 마지막회가 1919년 8월 2일짜에 실렸는데, 1920년 3월 24일짜 『매일신보』 기사에 여전히 영업하러 다니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아,<sup>26)</sup> 백운선은 이 사이에 상해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변영만이 들은 소문에도 그렇고, 『매일신문』의 가십 기사로 보아도 김 소년은 백운선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간절하게 사랑을 바치며 진정성을 보이는 쪽은 백운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영만은 그 백운선의 사랑의 행동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극장에 가서 연극을 관람하였다. 한 여자를 보았는데 쓸쓸히 여러 여자 사이에 서서, 멍하니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하였으며 모습은 매우 단아한데 생각은 어딘지 모르게 몽롱한 것 같았다. 친구는 나를 꼬집으며 “이 여자가 백운선일세.”라고 말하였다.<sup>27)</sup>

변영만은 극장에서 우연히 백운선을 목격한다. 여러 여자들 사이에서 돋보일 만한 쓸쓸한 모습, 연극에 집중하는 것도 아닌 듯 멍한 모습, 단아한 용모에 생각은 이리저리 헤매는 듯한 모습, 모두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여인의 모습으로 읽힌다. 바로 이 여자가 백운선이었던 것이다. 소문만 듣고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을 들게 만들었던 백운선의 이러한 모습은, 소문을 듣고 변영만이 상상했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어디 멀리 가 있으면 현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용감한 사랑의 행동이 결실을 맺었다면 생각이 멀리 가 있지 않았을 터인데, 결실이 없었으므로 생각은 멀리 존재하지 않는 결실의 자리를 떠돌며 애타게

26) 『화류계소식—백운선의 일』, 『매일신보』, 1920.3.4.

27) 변영만, 『백운선 이야기』, 586쪽, “一日與友人, 赴劇社觀劇, 見一女子, 悄然立群女間, 惘然若有所亡失, 貌甚端而意迷離者. 則友人爪余曰: “此白雲仙也.”

찾아가고 있을 터이고, 시선은 무대보다 더 먼 곳을 향해 있을 것이고, 대사나 노래는 귀에 들리지 않았을 터이다. 용감한 사랑의 행동에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한 여성이 극장의 사람들 틈에서 쓸쓸하고 뭔가 잃어버린 듯하고 몽롱한 듯 서있는 것은 변영만이 기대하고 상상하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어느날 친구에게 이끌려 백운선의 집에 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찬찬히 살펴보니 운선이 막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빗질하며 땅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다. 머리를 틀어 올릴 때는 손놀림이 무척 더디면서도 가늘게 떨려, 마치 귀중한 보물을 받드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머리가 거의 완성되었는데, 거울을 한번 힐끗 보더니 홀연 다시 내리고 풀고 빗질하고 땅고 말고 틀고 겹치며, 입으로는 중얼중얼 스스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이러기를 서너 차례 함에 이르러 머리가 더 아름다워지지도 않았건만, 머리손질이 마침내 끝날 수 있었다. 대개 여자들이 자그마한 일에 애쓰는 것이야 늘 그러한 것이지만 운선은 특별히 심한 경우였다.<sup>28)</sup>

그녀의 영업점에서 백운선은 극장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쓸쓸하지도 몽롱하지도 않은 모습이다. 머리 다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강박적으로 다시 다듬고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싫증이 날 정도로 반복하는 것이다. 변영만은 이후 며칠 동안이나 우울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친구는 변영만이 백운선에게 빠진 것으로 여기고, 우울해하지 말고 돈을 좀 써서 그 기생과 놀아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변영만의 우울은 백운선을 탐내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백운선의 이해할

28) 변영만, 『백운선 이야기』, 587쪽, “因得以詳察焉, 雲仙方理髮, 梳辮甚謹, 其爲髻也, 動手甚遲而微顫, 若奉重寶然者. 如是而髻垂成矣, 而窺鏡一靚, 忽復下之, 散之櫛之撚之卷之曲之疊之, 口且喃喃自罵. 如是者, 至于三四, 髻不加美而髻竟得成. 蓋女子之勤於細事, 常也, 而雲仙其特甚焉者也.”

수 없는 모습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대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사랑이란 것이다. 불길을 무릅써도 타지 않고 물을 밟아도 빠지지 않으며, 귀신의 집과 짐승의 굴 사이를 왕래하면서도 눈빛이 태연한 것이 사랑의 힘ियो, 칼은 가히 장사(壯士)의 담(膽)을 서늘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당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할 수 있음도 사랑의 일이 그러한 것이다. 한창 운선이 김 소년을 사랑할 적에, 그것이 어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부귀(富貴)의 처지가 되기를 바라서였겠는가? 그것이 불가능함은 운선도 모르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였다. 끝내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자 한밤중에 홀로 달이나 이역(異域)으로 도망해가서 밤낮으로 애태우고 간을 조이며, 목을 늘어 동쪽을 바라보면서도 힘든 줄 몰랐던 것은 다만 김 소년이 혼연히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상해가 비록 지극히 먼 곳은 아니며, 반년이 비록 유구한 세월은 아니지만, 안락함을 이롭게 여기고 편안함을 다행으로만 여기는 한 기녀(妓女)가 능히 이렇게 하였으니, 불길을 무릅쓰고 물을 밟아 생사를 넘나드는 것도 백운선이라면 해내었을 것이다. 이같이 용감한 여자가 지금은 거울을 대하여 마음을 썩이면서, 머리 손질에 온힘을 기울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싫증이 나게 하면서도 전혀 스스로 그 무익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 사람이 어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흔쾌히 험난함에 달려가던 운선이란 말인가?<sup>29)</sup>

변영만은 자신의 우울감의 원인을 여기서 밝힌다. 사랑의 감정에 헌신

29) 변영만, 『백운선 이야기』, 588쪽, “夫天下之最可駭者, 愛之爲物是已, 犯火不爛, 踏水不溺, 往來乎鬼宅獸窟之間, 而目淵淵然者, 愛之力也; 刀劍可以寒壯士之膽, 而當之若無物焉者, 愛事然也. 方雲仙之摯愛金少年也, 豈敢藉彼爲富貴地哉? 其難能也, 雲仙無不知也, 而猶不能以相捨也. 卒不自獲, 則宵夜孤遁, 竄至異域, 而其日夜煎腸摧肝, 引領東望而不知其疲者, 徒以金少年能惠然至也. 上海雖非絕遠, 半載雖非悠久, 而利安幸便之一妓女能辦此, 則犯火踏水, 出入死生, 白雲仙有之焉矣. 以如是之勇女子, 而及今對鏡腐心, 傾專力於毛髮之間, 至於令人生厭, 而并不自知其爲無益, 此豈復不知水火鋌而走險之雲仙也哉.”

하여 어떠한 곤란도 감당할 듯하던 백운선이 고작 머리 다듬기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랑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용기를 내게 만든다고 변영만은 생각했다. 사랑의 힘은 심지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사를 넘나들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했다. 백운선을 극장에서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용기를 지녔던 한 여인의 후일담 속의 모습과 같았다. 거기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길고 지루하게 머리를 만지고 다듬고 꾸미는 백운선의 모습에서는 사랑을 위해 커다란 용기를 발휘했던 한 여인의 상상 속 모습과 너무 괴리되어 있어 두 모습 사이를 연결지를 맥락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거기서 변영만은 우울한 기분을 느낀 것이다. 말하자면, 해석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난 지식인의 우울이었던 것이다. 그런 소소한 몸단장이 여자의 일이므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운선은 특별히 심한 경우”였던 것이다.

사랑을 위해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상해로 떠났던 백운선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금 눈앞에서 머리카락과 싸우고 있는 백운선의 강박적 행동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한 변영만이, 백운선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꺼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랑의 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태연할 수 있으며, 칼날도 아무 것이 아닌 양 맞설 수 있고, 물과 불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이 변영만의 표현처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로 평가받는 것은 다분히 근대적 환경에 포섭된 결과이다. 남녀 간의 애뜻한 정서와 끌리는 욕망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어떤 언어로 포착하느냐는 그 시대와 작가의 이데올로기가 결정할 것이다. 이옥은 주체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려던 기녀 가련의 욕망을 걸맞은 군신남녀가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의 차원에서 설명하려 했다. 변영만은 재물보다 지식과 열정

을 갖춘 청년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기생 백운선의 욕망을 사랑의 절대성, 부귀(富貴)의 욕망보다 강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설명하려 했다. 이옥은 그것을 “우불우(遇不遇)”의 개념으로 포착하려 했고, 변영만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로 포착하려 했다.

변영만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발견한 때는 “연애(戀愛)”라는 번역어가 일본을 통해 수입되고 그 불온한 매력에 끌려들어간 청년들이 등장하는 근대의 시대였다. “개인의 사랑과 행복을 공공연하게 추구하기 시작한 청년들을 과문의 한복판에 몰아넣었고, 퇴학·이혼·자살 등의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게끔 만들었다. 1910년대 말~1920년대 초를 통해 청년들을 사회적 저항세력으로 만든 핵심적 계기는 바로 연애였다.”<sup>30)</sup> 바로 그 “연애” 세대의 핵심 정신을 변영만은 바라보았던 것이다. 백운선 역시 그 “연애”라는 풍조 속에서 재물보다 지식과 열정을 갖춘 청년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열병을 앓게 되었던 것이고, 김 소년을 그 상대로 확정한 것이다. 어쩌면 백운선의 용감함은 당시 연애를 선망하고 연애 관계를 기호화하여 소비하던 시대의 이데올로기<sup>31)</sup>를 과감히 행동으로 옮긴 점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과감한 결행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언어로 포착하며 변영만이 백운선의 행동에 경의를 보내는 것은, 연애라는 근대적 현상 속에 과장평가된 사랑의 감정에 동의한 결과이다. 거기에는 암울한 시대에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찾고 싶어하던 변영만의 태도가 개입되어 있는 듯하다.

「백운선」과 같은 해에 지어진 「동지 여러분께 부쳐 소회를 적음(寄同志諸人述懷書)」에서 변영만은 현실을 장사치의 세상으로 규정하고 그 천박한 장사치의 세상을 벗어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 새로운 세

30) 권보드레, 「연애의 현실성과 허구성」, 『문학/사학/철학』 제14호, 2008, 76쪽.

31) 이태숙, 「1920년대 연애 담론과 기획 출판」, 『한국현대문학회』 27집, 2009, 25쪽.

상의 대안적 삶은 풀과 나무가 사람 같고 사람이 풀과 나무 같은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노동·문예·음악 이 세 가지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으로 지목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 천박함과 간사함과 집착을 끊게 되면 이 세상의 죽이고 흠치고 굶주려 고달프고 병들어 근심하는 일 없이 사랑하고 밝고 성스럽게 된다고 하였다.<sup>32)</sup> 대안적 삶에 이르는 도구가 혁명적 폭동 같은 것이 아니라 정서순화의 기능을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셈인데, 여기 독특한 문예주의자로서 변영만의 매력이 녹아있다고 여겨진다.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세상을 돌파하는 힘을 정서적 가치에서 찾아보려 했던 것이다. 노동·문예·음악과 더불어, 『백운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의 힘을 통해서도 천박함과 간사함과 집착을 끊어내는 계기를 찾아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의 힘에 대한 예(例)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던 용기를 보여줬던 백운선이, 이제 보여주는 강박적 행동은 변영만이 보기에도 천박함과 간사함과 집착의 한 종류로 보인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행동인가, 다시 김 소년과 같은 자를 위해 하는 행동인가, 그렇다면 그 행동은 웃음을 파는 장사치의 행동일 따름이고, 그 행동은 등불을 밝히며 돈을 세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 이러한 연상 속에서 변영만은 우울한 감정이 들었던 것이다.<sup>33)</sup>

32) 변영만, 『동지 여러분께 부쳐 소회를 적음(寄同志諸人述懷書)』, 같은 책, 266쪽, “竊嘗以爲世界者, 商賈之世界也. … 夢見一國 草樹如人, 人如草樹, 時有嚴香春鼻而醒返此土也. 吾敢斂衽跪地, 以正告于我友生者. … 苟欲致此也, 其門有三而政法不與焉. 曰勞務曰文藝曰樂歌是也. 由勞務門入, 斯無邪妄矣, 由文藝門入, 斯遠俗短矣, 由樂歌門入, 斯絕執拗矣 絕執拗 爲悅悅 然後則聖嚴矣, 遠俗短 爲淵絮 然後則明動矣, 無邪妄 爲感激 然後則慈惻矣. 夫豈有慈惻明動聖嚴之世, 而復以殺伐攘竊飢困疾愁爲患者哉!”

33) 변영만, 『백운선 이야기』, 588쪽, “且其辛勤爲容, 果誰爲而爲之也. 寧能復爲金少年哉, 則雲仙直一倚門賣笑, 挑灯數錢之流耳. 余百索而不得其說, 故不憚.”

친구가 말하기를 “운선이 본래 장식을 중시했으니 그의 평소 성품이 그러한 것이지 객지[상해]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과연 그렇다면 이는 더욱 알 수 없는 것이요, 족히 나의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드디어 듣고 본 것을 기록하여 우주는 크고 인사(人事)는 복잡하여 의아한 것이 정말 많은데 운선의 일도 또한 그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아울러 친구에게도 보인다.<sup>34)</sup>

변영만은 우주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백운선의 내면 풍경을 변영만이 이해할 척도는 찾을 수는 없으나, 우주간의 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려다가 결국 맥락을 찾지 못한 일로서 적어둔다는 뜻이다. 앞서 보았던 이옥이 형상한 가련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야기의 주인공이 서술자의 이념 밖에 존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옥의 경우와 달리 변영만은 서술 층위에서 자신의 이해 수준과 어긋나 있음을 직접 고백하고 있다. 여기에는 변영만이 문학적 진정성을 자신의 문예주의의 핵심 가치로 추구한 것과 관련된다. 이념의 프리즘을 끝까지 관철하려 하지는 않은 것이다. 결국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은 백운선의 내면은 그것대로 남겨 두었다.

#### 4. 맺음말

이성을 향한 욕망은 어느 때고 없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여성이라고 해서 없을 수도 없는 것이다. 기녀라고 해서 아무 남자에게나 끌리는 것

34) “友人曰：“雲仙雅重粧飾，其素性然也，非自旅還以來也。”果爾則是滋不可解者，非足以開余者。遂書其所聞概，以見宇宙之大，人事之錯，可疑者正多，而白雲仙亦不失其爲一焉，并以示友人焉。”

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근대와 근대의 사이에서 완전히 별종의 감정으로 나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개념으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지는 것이다. 『북관기야곡론』에서의 가련은 제한적 상황에서나마 주체적 선택을 했고, 전근대 문인 이옥은 그 상황을 군신간의 의리와 같은 차원의 만남에서 해석하고 포착하려 했다. 『백운선』에서의 백운선은 기생의 신분으로 자유 연애를 실천했고, 근대 문인 변영만은 그 상황을 절대적 사랑의 정서로 해석하고 포착하려 했다. 그러나 『북관기야곡론』에서 이옥은 대상을 전면에 내세워 발언하게 하는 방식의 특성 때문에 기녀의 욕망이 의리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고 돌출하는 순간을 만들게 되었고, 『백운선』에서 변영만은 대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 속에 기생의 일상이 절대적 사랑 관념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전근대와 근대의 두 남성 문인이 기녀의 욕망을 놓고 온전히 포착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 실패의 요소는 그러나, 두 작품의 문학적 성취에 보탬이 되었다. 군신과 같은 차원에서 남녀의 만남을 다루려고 하다가 돌출하는 기녀의 욕망이, 가련의 절절한 내면 풍경을 묘사하게 되었고, 절대적 사랑의 관념으로 용기 있는 결단에 주목하다가 그 결과에 이탈하는 기생의 일상이, 하릴없이 무료한 백운선의 머리손질을 묘사하게 만들며 그녀의 내면 풍경을 궁극하게 만든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작가의 이념이나 포착하려는 개념을 벗어나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묘사를 성취하게 만든 것이다. 의리나 도덕의 층위에서 벗어난 사건을 이념과 개념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것 자체의 진정성을 따라가는 문학적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옥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완역 이옥 전집』 1·2, 휴머니스트 2009.
- 변영만 저,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변영만 전집』 상·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 이능화 저, 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 『매일신보』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1~855쪽.
- 권보드래, 『연애의 현실성과 허구성』, 『문학/사학/철학』 제14호, 2008, 61~83쪽.
- 김영진, 『이옥 연구(1) —가계와 교유, 명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8, 2002, 341~366쪽.
- 김진균, 『변영만의 상이부안씨에 나타난 근대적 비극과 문학적 진정성』, 『한문고전문학연구』 28집, 2014, 231~249쪽.
- 박무영, 『여성화자 한시를 통해 본 역설적 ‘남성성’ —「이언」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7집, 1999, 93~116쪽.
- 신현규, 『기생 백운선을 콘텐츠로 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고찰』, 『어문논집』 43, 2010, 219~243쪽.
- 이동환, 『조선 후기 한시에서의 민요 취향의 대두』, 『한국한문학연구』 3·4 합집, 1979, 27~71쪽.
- 이지양, 『이옥의 문학에서 “남녀 진정”과 “열절”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29집, 2002, 433~462쪽.
- 이태숙, 『1920년대 연애 담론과 기획 출판』, 『한국현대문학학회』 27집, 2009, 7~30쪽.
- 임형택, 『변영만의 글쓰기 형식과 문학 사상』, 『대동문화연구』 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173~189쪽.
- 정우봉, 『18세기 함흥 기생 可憐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한문교육연구』 34집, 2010, 353~386쪽.
- 정환국, 『이옥에게 있어서 ‘여성’』, 『한국고전문학연구』 27, 2013, 251~281쪽.

## ABSTRACT

## A male writer's betrayed: uncovering a ginyeo's inner life

Kim, Jin-kyun

Ok Yi's *Buk-gwan-gi-ya-gok-ron* (A treatise on a Gisaeng from Hamkyungdo lamenting in the middle of night) and Young-man Byeon's *Baek Wun-Seon* both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deal with the episodes of well-known gisaengs' lives in their contemporary era. It is notable that both of the works describe the stories of ginyeos from the perspective of a male writer, trying to gingerly get access to the interior or psychological scene of the feminine lives. Yi portrays a gisaeng named Ka-Ryeon who is full of confidence, only to face the frustrating situation in making her serious effort to have sex with a beautiful young man with whom she madly falls in love. With this story, the writer strives to explicate the implications of Ka-Ryeon's desire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a king and his subject. Byeon recollects a story of a gisaeng named Baek Wun-Seon who seeks to run away abroad with her beloved man, but only to fail in the end. The writer's primary concern with this episode lies in exploring an absolute value of love and passion. However, when Yi employs the narrative voice of Ka-Ryeon to lead the story in *Buk-gwan-gi-ya-gok-ron*, the strategic choice ironically betrays the author's male-oriented perspective and discloses the rather natural scope of the gisaeng's desire. In so doing, the text formulates fragmented and yet authentic quality of the female voice. The literary engagement of Byeon who is eager to uncover the authenticity of his literary object betrays his initial intention in *Baek-Wun-Seon*. By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dimension of gisaengs' lives, the two male writers initially intend to capture the heart of their feminine lives with their masculine voice. But the strategy is miscarried only to reveal the authenticity or rather genuine quality of ginyeos' inner lives which often remain

undisclosed in common literary discourse. It is notable how this whole process ironically exposes the full scope of gisaengs' silenced voices in the early modern literary discourse.

**Key Words** Yi OK, Byeon Young-man, *Buk-gwan-gi-ya-gok-ron*, *Baek Wun-Seon*, desire, authenticity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